제 186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일본의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N.루만의 관점에서
강연자: 현윤경(玄潤慶) (서울대 사회학 박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現국제대학원)에서 일본지역학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현윤경 박사의 '일본의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N.루만의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6 월 9 일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1990 년대 경제불황을 겪을 때까지만 해도 생활의 보장이 확실하다고 기대하며 살 수 있었던 일본인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자명성의 변화를 체험한다. 이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난 사회적 병리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기존 질서가 어떠한 구조적 조건으로 형성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현윤경 박사는 보았다. 루만 이론의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는 체계로서 일본의 '생활보장'을 다루되 그 생활보장 체계를 일본적으로 현출시키는 그 환경과의 차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사회가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각적으로 사회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성찰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현윤경 박사에 의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는데 있어 루만의 체계이론은 아주 유용하다. 체계이론의 초점은 실제로 보이는 것, 즉 어떤 현상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실재하는 대로 나타나는가'에 있다. 따라서 체계이론은 일상의 질서를 소여로 전제해 놓고 거기에서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묻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라는 설명이다.

루만은 대상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2 차 등급의 관찰(Beobachtung zweiter Ordnung)'이라 정의하였으며, 현윤경 박사의 연구는 2 차 등급의 관찰의 시각에서 일본에서 생활이 보장되고 미래가 확실하다는 기대를 가능케 한 신뢰기반이 어떠한 구조적 조건(의미규정)으로 형성되었는지, 거기에서 개인은 어떻게 자리매김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여기서 관찰이라 함은 다른 쪽이 아니라 한 쪽을 지시하기 위해서 구별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루만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즉 관찰이란 구별해서 한 쪽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 행위는 동시에 일어난다. .

따라서, 자기관찰(체계의 생성 과정)은 "제한 없는 세계(즉,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인 세계 -인용자)가 하나의 경계선(=구별 -인용자)으로 재단되고 그 결과 한 쪽에서는 어떤 체계가 활동하고 다른 한 쪽은 그 체계의 환경으로 간주되므로 분석대상이 되는 체계마다 그 체계의 다른 쪽이 환경이 된다(ルーマン,1993: ⅰ-ⅱ)". 이 때 중요한 것은, 체계는 스스로를 생성하게 한 구별을 볼 수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구별은 '자기 내포적' 구별이기 때문에 이 구별을 보려면 또 다른 구별이 필요하고, 체계의 구별은 2 차 등급의 관찰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생활보장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현윤경 박사는 풍토적인 영향을 받은 일본 문화를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의 말을 인용하여 '틀 문화'로 규정하고, 일본사회를 구성하는 소통은 틀 문화에서 추출되는 <전체/부분><내부/외부>라는 의미론으로 일차적으로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체계의 테마는 정치 내부의 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 목표인 복지이념(복지관)과 관련되며 전전과 전후의 복지관은 자선구제관, 사회적 연대, (전시)국민후생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한 공적부조, 복지국가, 일본형 복지사회로 변화했음을 보였다.

나아가, 체계이론의 시각에서 전전과 전후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사회보장 체계는 전체적 포섭의 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대해 의미론상으로 대응하여 질서를 구축해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 개인은 장(국가, 기업, 자족)의 <전체성>에 대해 <부분>으로서 자리매김되고 <구별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사회체계 이론으로 봤을 때 <부분/전체>를 주된 차이로 하는 구조는 근대사회 이전의 사회, 특히 '분절분화'된 사회의 구조로 간주된다. 루만이 소개하는 분절사회 특징에서 일본 생활보장 체계의 특징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현윤경박사는 말했다.

<개인>은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전체> 내에서 특정한 불변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분수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생활이 보장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루만은 이런 신뢰를 "자연발생적인 신뢰(spontan Vertrauen)"라고 부르고, 이러한 신뢰를 낳는 사회체계는 "가동적인 환경 속에서는 체계의 존속도 계속적인 신뢰도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일본의 경우에 대입하면 일본의 생활보장 질서는 이런 신뢰를 양성하는 신뢰기반이며, 그 동안 일본은 환경 변화에 대해 장 구조의 의미론상 대응만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나, 1990 년 중반 이후 일본이 질서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제 기존 구조로는 예전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형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2 차 등급 관찰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체계를 상대화시켜 체계가 맹점을 가지고 있기에 볼 수 없는 자체 형성 맥락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체계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일본사회가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각적으로 사회구조 변화를 이끄는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성찰을 촉구하는 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사회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제공하는 신뢰기반 형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현윤경 박사는 강연을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1. 일본사회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이전과 같은 장 구조 안에서의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전의 체계하고는 크게 다른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혹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가설을 세우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먼저 밝혀둘 것은, 본 강연의 내용은 제 박사논문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논문에서

는 현재까지의 내용이 분석되어있습니다만, 아직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998년 문제', 즉 현재와 미래의 연결을 확실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확실함을 자명한 것으로 여기게 된 데서 온 아노미 반응(중장년 남성 자살자 급증, 이혼과 아동학대의 증가, 실업자와 니트의 증가, 청소년 범죄와 등교거부의 증가, '사회적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의 증가)이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헌법개정 등의 現아베정권의 정책을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급구조에서 2급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만,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 문화'는 쉽게 바뀔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2차 등급의 관찰자 시각을 도입하여 체계의 맹점을 알리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일제시대의 복지관이라는 것이 식민지시대 한국에도 있었던 개념이고, 해방 이후에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 등으로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그 문제를 다룰 때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답변 : 저의 경우는 일본의 풍토적인 영향을 받은 '틀 문화' 로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일본과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억' 이므로, 한국은 한국만의 역사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3. 일본의 문화, 그 중에서도 일본의 사회보장 체계를 루만의 이론으로 분석해주셨습니다만, 일본을 단일한 기준의 문화론적 틀 속에서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풍토적 영향을 받은 '틀 문화' 외에도 일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가 주도의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하는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배제하고는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별 없는 관계'의 경우에도 풍토적 영향 이상으로 급속한 자본주의 및 근대화의 진전이 구별 없는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답변 : 저의 논문 중 <내부>에 관한 분석을 더 자세하게 진행하게 되면 말씀하신 사회경제적 영향이 다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루만 이론'을 통한 체계와 환경의 차이와 이를 형성하는 구별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 <내부><외부>의 양극 구조를 가져와서 분석하였으나, 만약 다른 구별이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다른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강연 내용 중에 레옹 부르주아가 '사회적 연대'사상 즉, 자연적인 '사실로서 연대'에서 '의무로서 연대'로의 이행을 주장하였다고 하시면서, 일본은 이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자연적인 '사실로서 연대'에 머물렀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본의 관료들이 이 사상을 수용하여 사회 사업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수용했을지 모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용되었다고 할 수 없기에 상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연대는 이미 '우리 가족'에서 경험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니 '우리 가족'처럼 사회를 '우리 사회'로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된 것입니다.